

힘내라! 소상공인! 템퍼 광주신창점



템퍼 광주신창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객 체험관.

“잘 자는 것이 경쟁력”...템퍼, 개인화 수면시장 선도

현대인에게 '잠'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생활습관 속에서 수면의 질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수면을 돕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침대 역시 가구가 아닌 '건강을 위한 투자'로 여겨지는 추세다.

이처럼 수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침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수면을 코칭'하는 방식으로 주목 받는 업체가 있다.

템퍼 광주신창점과 광천점. 상무점을 이끌고 있는 임현주 대표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뒤 자연치유학을 공부하며 '먹는 것'만큼이나 '자는 것'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임현주 대표는 "건강은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잠과 생활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몸이 회복된다"며 "그런 점에서 침대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하는 도구"고 강조했다.

임현주 광주신창점 대표 "침대가 아닌 잠을 팝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균 1시간 이상 1대1 맞춤 상담 체형·수면자세 분석 통해 개인화된 수면 환경 제안

과거 건강이 크게 무너졌던 경험 역시 수면 연구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됐다. 생활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이후 침대를 단순한 가구가 아닌 '건강을 설계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됐다.

현재 그는 광주에서 템퍼 전문 매장을 운영하며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평균 1시간 이상 이어지는 상담은 고객의 체형, 수면 자세, 생활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매트리스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코칭'에 가깝다.

임 대표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설명을 듣고,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며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객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템퍼 매트리스의 핵심은 점탄성(Visco Elastic) 폼이다. 일반 스프링 매트리스가 강한 반발 탄성을 갖는 것과 달리, 체압을 흡수·분산해 신체 곡선을 따라 밀착 지지한다. 어깨와 허리 부담을 줄여 숙면을 돕는 구조다.

임 대표는 제품 판매와 함께 수면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직접 제작한 수면 안내 소책자를 통해 올바른 매트리스 선택 기준과 수면 환경 관리법을 정리해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 대상 설명을 듣고,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따라



임현주 대표

중이다.

임 대표는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잠을 잔다. 수면 설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수면을 단계별로 관리해 주는 것이 진짜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수면 시장을 '개인화'로 전망한다. 과거 한 침대를 가족이 함께 쓰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인 체형과 취향에 맞춘 맞춤형 수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문 상담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임 대표는 "예전에는 침대가 집 안의 가구 중 하나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건강 장비에 가깝다"며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허리 통증, 어깨 결림,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매장을 찾는 고객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임신부나 중장년층 고객의 경우 체형 변화와 통증 문제로 인해 매트리스 선택에 더욱 신중해진다"며 "때문에 상담 과정을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수면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대를 그냥 단순한 가구라 판단하고 대충 고르려는

경향이 있다"며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철학은 직원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각 매장 점장들 역시 정기적으로 수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제품 설명을 넘어 고객의 생활 습관을 함께 상담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임 대표는 이를 두고 "좋은 제품에 전문 상담이 더해질 때 비로소 만족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면과 건강을 연결한 장기적인 비전도 밝혔다.

임 대표는 "결국 건강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기본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수면의 질을 바꾸는 일일 지도 모른다"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꿈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템퍼 광주신창점 내부 전경.



템퍼에서 판매 중인 '어고 스마트 베이스' 모션베드.



정주영 창업회장.

현대차그룹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음악회

정의선 "사람 위한 혁신...할아버지 정신 계승"

세계적 피아니스트 연주...각계 인사 등 2500명 참여

현대차그룹이 정주영 창업회장 서거 25주기를 맞아 그의 정신을 음악으로 재조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추모 음악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이 무대에 섰으며, 정·관계, 재계,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 및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총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해경 여사를 비롯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계 인사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 재계 인사가 모습을 비쳤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서서 길을 개척한 정주영 창업회장의 삶과 철학이 세대를 넘어 현재에 더 큰 울림으로 공명하고, 인류 사회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

며, '이어지는 울림'이라는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정의선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이번 추모 음악회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깊은 '울림'을 기리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할아버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사람'에서 시작됐다"면서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25년이 지났지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그 울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며, 많은 지혜를 배운다"며 "앞으로도 할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

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정 회장은 "몇 년 전 김선욱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님과 이번 네 대의 피아노 연주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제가 만약 할아버님께 연주회 내용을 여쭙으면, '아빠! 뭘 말씀여, 해 봐!'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정주영 창업회장을 추억했다.

음악회는 한 대의 피아노에 김선욱, 조성진이 나란히 앉아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을 연주했다. 이어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을 선우예권, 임윤찬이 연주했고, 네 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네 대의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된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 리스트의 '헝가리안'을 선보였다.

네 명의 피아니스트는 창업회장이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며 이룬 성취는 물론 지금 세대에 주는 희망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또 피아노 네 대의 앙상블로 추모 음악

회의 대미를 장식하며, 개인의 도전이 사람들의 동행과 조화로움 울림으로 확장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김선욱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는 "이번 추모 음악회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정주영 창업회장을 음악으로 다시 마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말보다 오래 남는 음악을 통해 그분의 삶과 정신, 그리고 그 분이 남긴 시대의 무게를 관객들과 함께 조용히 되새길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주영 창업회장은 대담한 비전·불굴의 의지·사람을 위한 혁신으로 한국 산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 영향력이 큰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지난해 정주영 창업회장-정몽구 명예회장-정의선 회장 등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